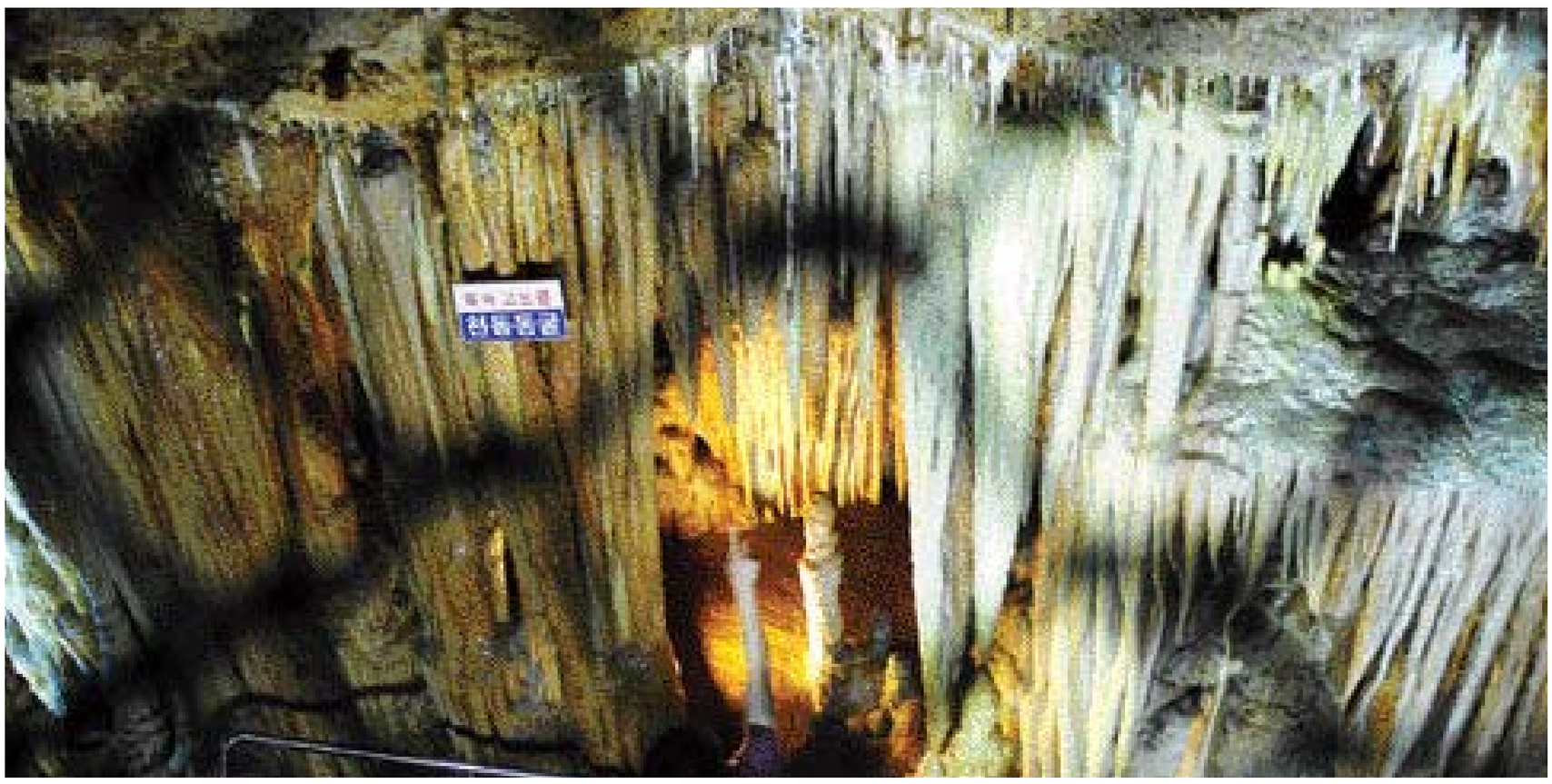
단양·평창으로 떠나는 땅속 여행

# 무더위 훌훌 동굴속 피서

여름 기세가 만만치 않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몸도 마음도 지친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땅속으로의 색다른 여행을 떠나보자.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8월 여행, 자연과 역사가 꿈틀대는 강원도 평창의 백룡동굴과 충청북도 단양의 고수동굴이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 짜릿하고 신비한 탐험…억겁이 빚어낸 비경를 만나다

◇**긴 잠에서 깨어난 평창의 백룡동굴**=더위가 살짝 비껴나 있는 곳 강원도. 정선과 평창, 영월을 지나며 산 사이를 구불구불 흘러가는 동강 변도 예외가 아니다. 물줄기가 석회암지대를 지나며 깎아 만든 병풍절벽 위를 걸으며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그 풍경사이를 따라 즐기는 래프팅과 카약타기도 좋지만 수억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동굴을 탐험하며 시원한 여름을 만끽할 수 있다.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어름치마을 백운산자락에 자리한 백룡동굴은 지난 7월 15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이곳은 학술조사를 거쳐 1979년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되면서 백운산의 '백'자와 정무룡 씨의 '룡'자를 따 백룡동굴이라 이름지어졌다.

백룡동굴로 가기 위해 제일먼저 찾아야 할 곳은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이다. 이곳에서 입장권을 구입하면 바로 탈의실로 안내된다. 준비된 동굴복으로 갈아입고, 장화로 갈아 신은 뒤 안전모를 받아 머리에 쓰면 탐사 준비가 끝난다.

동굴안내원과 함께 동굴입구에 도착하면 발밑도 보기 어려운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동굴탐험은 만 9세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은 체험할 수 없다.

안전모에 부착된 전등을 켜고 탐험을 시작한다. 동굴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람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다하여 '개구멍'이라 불리는 작은 통로가 나온다. 이곳은 낮은 포복자세로 기어 통과해야한다. 좁은 통로를 게걸음으로 지난 뒤 비스듬한 좁은 통로를 다시 한 번 기듯이 지나야만 동굴 전체를 볼 수 있다.

1회 20명 이내의 탐방객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한가로움 속에서 동굴생성물들의 화려함을 만끽할 수 있다. 절대암흑의 고요함도 동굴 밖에서는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이다.

백룡동굴은 정해진 관람시간에 안내자를 따라 관람이 이루어진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총 9번 입장할 수 있고, 1회 관람인원은 20명이다. 인터넷(3·4·7회차만 예약 가능)과 현장에서 매표할 수 있다. 관람료는 어른 1만5천원, 청소년과 어린이 1만원이다.

생태체험학습장에 도착해 준비를 마치고 동굴을 돌아본 후 다시 학습장으로 돌아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50분. 동굴 안쪽에서만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동굴을 돌아보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기 때문에 갈아입을 여분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굽이도는 삼각지, 단양 땅 밑**=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굽이도는 삼각지'에 속하는 단양은 단양8경을 비롯해 갖가지 아름다운 산천과 계속을 숨기고 있다. 단양의 땅 밑도 풍경 중 풍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날 더운 날 그리고 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동굴 속은 한결같기에 언제라도 좋다.

단양의 고수동굴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되어 있고 총길이는 5400m에 이르지만 현재 개발된 지역은 1700m이다.

동굴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한기가 송골송골 땀 맺힌 이마를 훑는다.

단양의 동굴에는 다양한 테마를 가진 바위들이 많은데 도담삼봉을 쏙 빼닮은 도담삼봉바위, 마리아상, 코끼리바위 등 다양한 형태의 종유석과 석순이 장관을 연출한다. 이렇듯 석회암과 지하수가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에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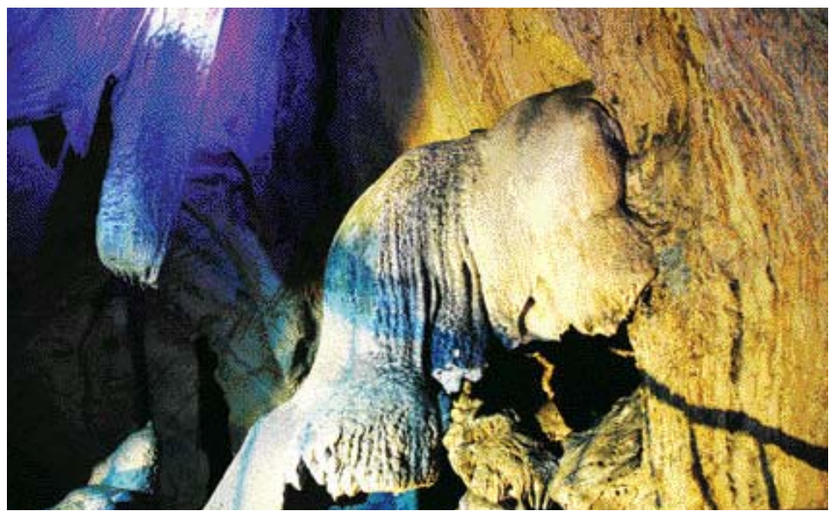
고수동굴은 하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5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관람료는 어른 5천원, 청소년은 3000원 어린이는 2000원이다. 관람인원이 많아 따로 인솔자는 없지만 탐험 중간중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수동굴을 나와 소백산 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천동동굴이 있다. 소백산 밑자락에 위치한 천동동굴을 가는 길에는 오토캠핑장과 펜션 촌이 늘어서 있다.

규모와 길이 면에선 고수동굴을 따라갈 수 없지만, 온달동굴과 천동동굴도 그 기묘함과 섬세함에 있어서는 전혀 뒤지지 않는다. 우선 고수동굴은 깊고 높다.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다. 한참 오르다가 아래를 본 순간 아찔함이 느껴진다. 그에 반해 천동동굴은 매우 좁다. 길이도 200m정도 밖에 안되지만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맛이 있다.

많은 구간을 기어가야 하지만 어린 꼬마들에겐 재미있는 놀이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가장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온달동굴은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안성맞춤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고수동굴을 나와 소백산 쪽으로 5㎞ 지점에 자리한 천동동굴.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맛이 일품이다.

◀많은 구간을 기어가야 하는 탓에 어린이들이 즐거워 하는 온달동굴.

▼천연기념물 제 256호 고수동굴. 입구에서부터 서늘한 한기가 느껴진다.